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30, 예레미야 50-51장, 열방에 대한 예언, 바빌론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50-51장, 특히 바벨론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신탁에 관한 마지막 세션인 30번째 세션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교훈이자 세션입니다.

이 내용을 시청하셨거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은 아마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와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적 정보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들이 정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독특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의 일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분들은 일종의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 수업에 이어서 열방에 대한 예언에 관한 두 번째 수업을 듣고 특히 50장과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특정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예언의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우리가 종말론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종종 선지자들에게 가서 마지막 사건이나 예언에 관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부 진실을 알려주는 거의 암호화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때로는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과 과거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패턴과 일들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46~51장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민족들과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의 패러다임이자 그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은 경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신자로서의 우리의 경험과 매우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에게 항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냉전 시절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성경적 예언에 관한 설교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목은 종종 '다가오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와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 구절과 같은 구절에서.

1999년에 저는 목사로서 모스크바에 있는 성경학원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 이르렀고, 이어서 에스겔 38장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련 시대에 뉴스 평론가로 일했던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목사님 질문입니다. 왜 당신들은 항상 우리가

마곡의 곡이라고 설교합니까? 그 문제에 관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반성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들은 마곡의 곡과 러시아의 연합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짜 문제는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싫든 상관없이, 제가 그런 종류의 구절들을 연구하면서, 선지자들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러한 신탁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종종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닳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에스겔 38장부터 39장까지가 러시아와의 다가오는 전쟁만큼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종말론적 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과 유다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공격이 나라들에 있을 것입니다. 열방은 다시 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 종말론적 전쟁을 사용하여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 에스겔 38장, 미가 5장, 요엘 3장, 스바냐 3장, 스가랴 12장, 스가랴 14장,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그 전투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참석할 모든 선수의 수와 이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유니폼 뒷면에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팀을 늘 고맙게 생각한다. 인식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마곡의 곡과 같은 구절에서도 마곡의 곡이라고 불리는 이 왕의 동맹국으로 언급되는 특정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의 나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계적인 연합의 대표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에는 일곱 나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침반의 네 방향에서 옵니다. 우리를 위해 특정화하려고 하는 대신, 이 특정 지리적 영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그룹,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적인 반역을 묘사하고 있고,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대왕국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곳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관해 예언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일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국들은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왔다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나라를 대적하여 인간이 세운 대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 전투는 항상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스포츠 일러스트 한장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기하는 영상이나 녹화본을 볼 때,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2쿼터에 혼전이 나오거나 1쿼터에 뒤쳐져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나는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프 타임입니다.

나는 예언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이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바벨론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에 대한 다른 신탁들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했듯이, 나는 우리가 주로 역사에서 일어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신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호화된 종말론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전에 살았던 특정 민족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가 향하고 있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 자체가 향하고 있는 곳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구원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벨론을 높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열방과 유다에 대한 패권과 지배권을 주셨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여호와께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 백성을 심판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국가와 상황, 정치적 사건과 군대와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50장과 51장의 약속,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50장에서 설교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여 울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침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슈브 샤부웃 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묻고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영원한 땅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코 잊지 못할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는 백성이 시작하여 여호와께 나아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을 멸망시켜야 해.

5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업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그러므로 바벨론은 유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공격을 당하든, 어떤 압제를 당하든, 어떤 박해를 당하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것처럼 이 제국들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큰 돌이 그들을 부서뜨릴 것이며, 그 돌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역전의 개념을 불러일으키거나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완전한 반전은 50장과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연설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책의 앞 부분에서 유다에 관해 읽은 내용이 직접 반전되는 것입니다.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유다에 임할 것으로 묘사되고 묘사된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는 데 동일한 구절과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이 타는 액체로 그들을 데게 하려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적군에 대한 강력한 묘사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절과 9절을 보면 이제 북쪽에서 오는 대적이 바벨론을 침공하여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한 북쪽의 대적이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유다 백성을 상대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엄밀히 말하면 군대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2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일련의 나의 의지 구절을 사용하여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개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벨론과의 성전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5절과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고를 열고 진노의 무기를 꺼내셨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있느니라. 칼데아인.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여 그의 창고를 열고 그를 곡식더미 같이 쌓고 그를 멸망에 바치라.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성전을 싸우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성전을 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41~43절에는 딸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심지어 그녀를 유다와 시온의 딸 예루살렘과 같은 젊은 여인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의 초반부에는 시온의 딸이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책의 후반부나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될 것은 바벨론의 딸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1절부터 43절은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유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바벨론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있는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강한 나라가 있으며 많은 왕들이 땅 끝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들은 활과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네 앞에 대열을 갖추고 전쟁을 벌이느니라 좋아요, 이제 저는 전에 사용하려고 했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한 소식을 너희는 아느냐? 그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바벨론을 향하여 전파하리라.

그러나 목사가 단순히 자신의 설교를 재활용하거나 선지자가 여기서 자신의 설교를 재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유다에 내린 심판은 마지막에도 바벨론에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바벨론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려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언적 정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한 것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책의 앞부분인 4-6장에는 유다로 쳐들어오는 침략군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 군대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는 나팔을 불며 경보를 주의하고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적군이 오고 있는데, 그들은 사납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1장 27절에는 바벨론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 위에 기를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며 열방을 준비시켜 그를 치며 전쟁을 준비하게 하라 자, 이제 나팔을 불고 그들의 요새화된 성벽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바빌론입니다. 이제 침략은 그들에게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책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용사들을 앞으로 겪게 될 고통 때문에 아동 노동에 몸을 굽히는 여성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0-51장의 약속 또는 경고는 바벨론의 용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인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읽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메시지가 유다 사람들 자신이나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배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제국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이고, 예레미야가 거기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포로 집단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셔서 개혁하시고 그들을 국가로 재건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내 말은, 믿을 수 없을만큼 놀라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겁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그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탁의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요새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나는 이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51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창세기의 바벨론 탑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가 크나 파괴자들이 내게서 와서 그를 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1장 58절에도 바벨론 성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땅에 닿아 헐거워지고 그 높은 성문들은 불에
살라지고 백성의 성문은 불탔느니라” 수고는 헛되며 민족들은 불에만
지치느니라.” 바벨론의 요새와 방어 시설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Zondervan의 삽화가 있는 성경 배경 주석에서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빌론 도시의 요새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 성의 내벽 두께가 이십 규빗이요
외벽의 두께가 약 십 이 규빗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느부갓네살은 성경 외의 기록에서 전사이자 정복자로 묘사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건축자, 혁신가,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또한
성벽 주위에 보호용 해자를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는 군대가 도시를
침공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인공 호수와 침수 지역 시스템으로 성벽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성벽은 여러 개의 문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흔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슈타르
문(Ishtar Gate)이 그 중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베를린 박물관에서 그 모형을 볼
수 있는데, 그 벽 주위에는 250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상적인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자로서, 혹은
외부에서 바벨론 도시를 바라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까?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성 안에는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 있었고,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 건축된 엔토메나케의 신전이 있었고, 용과 사자의 형상이 있었으며,
바벨론의 강력한 신들을 형상한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내려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성경적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몇백 년 안에 바빌론 도시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들을 위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2세기에
루시안(Lucian)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머지않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찾아도 헛되이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몇 백 년 안에 바빌론은 잊혀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우리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백 년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는 세계 제국, 또는 적어도 고대 근동 제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애굽인에 대한 심판과 바로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력한 국가, 제국. 예전의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길 애굽에서 바로에게 대한 이 심판이 그 날에 백향목이 음부(히브리어: Sheol) 에 내려가서 애통하게 하였느니라. 애굽 왕이 음부(히브리어: Sheol) 에 내려가는 사실에 대한 슬픔 이 바로 이것이다 . 죄송합니다. 31장이 아니라 32장입니다.

이집트 왕이 스올 에 도착했을 때 ,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22절, 거기에 앓수르와 그 모든 무리가 있느니라. 24절, 엘람과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주위에 있음.

26절, 메삭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거기 있는데, 이는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구절에 언급된 백성 중 하나입니다. 29절, 에돔과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거기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웠느니라.

30절, 북방 방백들이 다 거기 있고 그들과 시돈 사람들도 있느니라.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음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저는 지난주에 텍사스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업데이트하고 그들의 관용어를 사용하여 텍사스 성경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쓴다면, 우리는 역사상 무너진 모든 국가와 제국을 모두 기록하고 그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미국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집행하신 역사적 심판일 수도 있지만, 열방을 위해 다가올 일과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국가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역사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1899년에 바빌론 발굴 작업을 하던 독일 고고학자들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도시 전체가 뒤덮여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 읽고 그가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강력한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그 도시가 흔들리지 않고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성벽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아요. 이 점은 충분히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50장과 51장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암호화된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몰락, 바빌론과 그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것이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인과 키루스에게 대표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정확한 방법인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의 멸망은 절대적인 멸망이라는 용어로 묘사됩니다. 도시는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폐허 더미, 자칼의 소굴, 그리고 온갖 것들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바벨론의 심판이 여기에 묘사된 내용의 완전한 성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키루스와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론 도시를 함락시켰을 때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함락시켰습니다. 사실, 당시 바빌론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들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 도시가 폐허더미가 되고 거기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이 재앙적인 심판을 말하는 이 구절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과 관련하여 사용된 멸망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재건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또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역사적인 구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와의 전쟁 중에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 및 기타 구약성서의 예언들을 대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생각은 미국과 사담 후세인 사이의 갈등과 당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구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의 시작 또는 서곡입니다. 이에 연료를 더한 것은 사담 후세인이 정권 기간 동안 바빌론의 고대 유적을 재건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성읍들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명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네부카드네자르의 아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미화하기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던 시절과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던 시절에 매우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파괴 언어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언서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이러한 일들은 주민이 없이 남겨져 자칼과 그 모든 종류의 소굴로 바뀌었고 고대 근동 전역에 걸쳐 반복되는 저주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왕들이 서로 언약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이런 종류의 저주를 선포하곤 했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성읍이 폐허의 소굴이 되고 너희 몸이 공중의 새에게 먹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고대 근동의 저주와 여러 면에서 비슷해 보이는 언약의 저주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50장 39절과 40절). 그러므로 들짐승들이 바벨론에서 하이에나와 함께 거할 것이며 타조도 그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모든 세대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승냥이의 소굴이 되고, 놀람이 되고, 비웃는 곳이 되어 거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총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고레스가 바빌론 도시를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데 이러한 유형의 설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글썄, 다시 대답은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생생하게 만드는 고대 근동의 저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빌론의 공중 정원에서 타조가 날아오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약의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고레스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종말로 인해 완전히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다른 곳을 볼 때 이와 동일한 유형의 저주 언어가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성읍들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기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25.9, 예루살렘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도시를 재건하고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위로서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저주이고, 여기 50장과 51절에서는 고대 바벨론의 멸망과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왕국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나가서 성을 보고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축한 큰 성이 아니냐?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궁극적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페르시아인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그 제국을 완전히 낮추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당시의 문학적 관습과 언어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책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라면 우리는 '와, 우리는 또 다른 역사 교훈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바벨론의 이름과 칭호, 장소를 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단순한 고대 도시 이상의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적용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이 특정한 종말론적 사건을 기술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리적 위치는 사실 단순한 도시 이상의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바벨론이 나타내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되는 인류와 왕과 왕국과 통치자를 반영하는 패러다임 국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적은 바벨론인데, 그들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반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바벨론은 여호와와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태의 종교를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탑을 건축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반항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구약 전체에 걸쳐 인간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본거지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바벨론 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넘어졌을 때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샛별, 새벽의 태양이여, 당신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맥상 사탄의 타락이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죽음입니다. 그는 금성과 같은 분이시며, 이른 아침의 샛별처럼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새벽이 지나 해가 뜰 때에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니라. 바벨론 왕의 멸망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을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하였느니라. 나는 내 권위와 내 왕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쪽 끝의 집회의 산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탄을 본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보좌를 하늘에 세우리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에 도전할 것이다.

나는 구름의 높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만들 것이다. 사탄이 아담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자, 바빌론 왕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음부(히브리어 : Sheol), 깊은 구렁이에 끌어 내려졌느니라 .

너를 보는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며 너를 깊이 생각하리라. 자, 여기 자기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모임에 앉아서 자신을 가장 높으신 신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썄요, 그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가 남자이고 결국에는 죽어 스올 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

Sheol) 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거기에 둔 다른 백성과 방백들과 왕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누가 왔는지 봤나요? 그리고 감옥에 나타난 경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당신의 왕족의 존엄한 자리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영원히 누울 수 있는 구더기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그가 스올 로 내려가 구더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오만함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은 역사를 네 대제국과 관련된 이방인 시대의 역사로 묘사합니다.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나 종말론적 세력 또는 둘의 연결을 대표하는 네 번째 제국이 있습니다. 이 네 제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산처럼 내려와 영원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기 있고, 여기에 있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벨론은 단지 하나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에 행하실 일의 패러다임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과 35절은 여기서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시 한번 반영합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을 묘사하기 위해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안하다 이것이 51장 34절과 35절이요 유다가 이르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는 나를 짓밟았습니다.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나를 괴물처럼 삼켰다. 그는 나의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는 나를 씻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구약의 혼돈의 괴물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물들과 마찬가지로 리워야단과 바다 괴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통제하고 정복하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대 근동의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를 위해 묘사된 큰 용, 사탄의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괴물을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이 괴물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마지막 제국을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짐승, 끔찍한 괴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인간 정부가 되는 모습이고, 이 인간의 반왕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그 최종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을 악의 상징이자 패러다임으로 묘사하는 것이 신약성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로서 로마와 갈등을 빚고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초대교회는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거나 로마를 바벨론의 또 다른 화신으로 보게 됩니다. 내 말은, 그들은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지 않지만 동일한 영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들과 왕국들과 제국들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상황에서 미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Peter Leithart는 우리가 바벨과 짐승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여 탑을 쌓은 사람들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제국을 건설하는 짐승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글썄요, 1세기의 로마는 바빌론의 모든 것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13입니다. 베드로는 이 책을 덮으며 문안하며, 바벨론에 있어 마찬가지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한다. 내 아들 마크도 마찬가지로요. 베드로가 바빌론으로 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는 것이며, 그는 로마를 바빌론의 도시로 언급합니다. 왜?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모형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신약성서에서 로마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의 또 다른 구체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 이것의 마지막 측면은 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해석상의 문제를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거기에 역사적, 종말론적 언급이 모두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는 요한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17-9장에는 바벨론 성읍이 일곱 언덕 위에 있는 성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이 아니라 로마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묘사한 것은 단지 로마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대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죄의 사람의 반역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50-51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교훈과 어떤 관련성이나 의미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갈등, 즉 인간의 반대 왕국과 하나님의 반대 왕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그 반대 왕국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모든 제국(에스겔 31장)은 결국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편에 서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 즉 예레미야서가 이 두 반대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 도시들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데스몬드 알렉산더(Desmond Alexander)는 그의 저서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서기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시 또는 위대한 도시인 로마의 암호로 종종 받아들여진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형상 속에 로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서의 바벨론은 로마제국의 수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고 구현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땅 위에 건설하기를 바라시는 도시와 정반대이다. 그는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성은 부와 권력에 대한 인류의 집착을 상징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부를 얻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면서 바빌론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경제력이 국내 및 국제 정치를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술적 주석인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제임스 레시그웨이 (James Resigway)도 자신의 주석에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매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인용문을 읽고 이를 모두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두 도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상성, 하나님의 성, 새 약속의 땅이다.

또 다른 상징적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사탄이 패러디한 것입니다. 바빌론은 일곱 개의 산이 있는 로마처럼 보이며 신성을 주장합니다. 그 보좌 위에는 참람된

이름들과 진홍색 짐승이 붙어 있느니라. 그러나 바벨론은 제국의 도시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던 고대 도시 바벨론입니다. 소돔은 악의 상징이다. 그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종말의 두 가지 선택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도시 바벨론은 그리스도인들의 포로와 소외 장소로서 땅에 매인 자들, 그 관점이 아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들의 영적 수도이다. 땅에 묶인 자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거민들이 거하는 곳이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보좌를 만들고 집을 짓느니라.

그러나 바벨론은 이 땅의 주민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의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현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속에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경고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국 멸망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심지어 지금은 개인에게도 실용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정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바벨론을 반영하는 가치관과 사상과 세상 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가치와 왕국 우선순위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6-5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뒤에 올 나라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성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경입니다.

자, 그것이 예레미야 46-51장에 있는 전부라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꽤 우울한 메시지입니다.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마지막 몇 분 동안,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일부 국가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에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지만 예레미야 48-4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주목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모압 족속을 심판하신 후에라도 내가 모압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후일에 모압에 대한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모압 사람들을 심판한 후에 그들의 포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슈브 하러 갈게 샤부트 .

나는 내 백성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행할 것입니다. 49장 6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여 심판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49장 6절에서 암몬 자손에 관한 이 구절 끝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샤부트 .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9장 39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회복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 일부의 운명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계획이며, 그들이 천국에 오면 그들의 재산이 회복된다는 점을 단순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회복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절대적으로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히 같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계획과 뜻과 동일하게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교는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 노력은 사도행전 1-8장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의 백성을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너를 통해 내가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할 구약 전체의 위대한 선교적 구절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12장 14-1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기업에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족속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족속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는 그들을 뽑고, 뒤집어엎고, 파괴할 것입니다. 심판 사역을 묘사하는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은 후에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 구절은 단지 유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각각 자기의 기업과 자기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만일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도록 가르친 것 같이 내 백성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가리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워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즉 심고 건설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열방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오면 멸망당할 민족인 바알을 두고 맹세하도록 가르친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부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으로부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왕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나라들이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책입니까?

이를 가르칠 수 있고 이 비디오 시리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과 구원의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이며, 그것이 처음 주어진 맥락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과 함께하고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50-51장, 특히 바벨론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신탁에 관한 마지막 세션인 30번째 세션입니다.